

# “삼각김밥 다 폐기”...물류 차질에 CU가맹점주 직격탄

### 배송 파업에 상품 공급 차질...광주·전남 점포 피해 속출 노조·본사 협상 난항에 장기화 우려...“정부, 중재 나서야”

편의점 배송 노동자 파업으로 광주·전남지역 CU 가맹점의 상품 공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매출 감소와 폐기 증가 등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

냉장·냉동 상품 입고가 불규칙해지며 점포 운영 차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가맹점주는 물론 소비자까지 피해 확산 우려도 커지고 있다.

CU가맹점주협의회는 16일 전남 나주시 동수농공단지 내 비자이프로시스 나주물류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물류 차량 출입이 통제되면서 배송이 중단되거나 지연되고 있다”며 “전국 약 4000여 점포가 상품 공급 차질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번 사태로 점포들이 주문 상품을 제때 공급받지 못하거나 장시간 지연

되고있면서 직접 피해액만 수십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편의점 특성상 별도 보관 공간이 부족해 하루만 물류가 끊겨도 매출에 즉각적인 타격을 입는 구조로, 도시락과 삼각김밥 등 신선식품은 입고 지연 시 폐기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광주·전남에도 CU 가맹점 970여곳이 분포한 가운데 이번 물류 차질에 따른 피해는 광주·나주 등 인근 지역 점포를 중심으로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류 거점과 가까운 지역일수록 배송 차질 영향이 직접적으로 반영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점포에서도 폐기가 가시화되고 있다. 광주지역 한 점주는 “물류가 2~3일씩 들어오지 않거나 입고 시간이 크게 늦어지

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매출이 30% 이상 감소한 날도 있고, 폐기 상품도 평소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고 호소했다. 이어 “주류나 담배 등 일부 품목이 아예 입고되지 않는 날도 있어 고객 이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최종열 CU가맹점주협의회 중앙회장은 “본사에도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대화를 통해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노조 측은 전국 25개 물류센터를 일괄적으로 묶어 협상하자는 입장인 반면, 본사는 각 센터별 여건에 맞춘 개별 협상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상 방식에 대한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물류 차질이 장기화되는 것이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현장에서 체감하는 점주 피해는 이미 한계 수준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점주협의회는 사태 해결을 위해 노사 간 협상을 통한 물류 정상화를 촉구하는 한편, 정부의 중재와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

다. 특히 분규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방지와 보상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노조 측은 이번 파업의 원인을 다단계 위·수탁 구조에 따른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문제로 보고 있다. 노조는 운송료 산정 기준이 공개되지 않는 ‘깜깜이 계약’ 구조 속에서 생계 유지가 어려운 수준의 임금이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사실상 휴무가 어려운 노동 환경과 건강권 침해 문제도 심각하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원청인 BGF리테일이 구조적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으며, 교섭 요구도 응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점주 피해와 노동자 처우 문제, 협상 구조 갈등이 맞물리며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지역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물류 차질이 길어질 경우 가맹점과 소비자 피해가 동시에 확대될 수밖에 없다”며 “조속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CU가맹점주협의회는 16일 전남 나주시 동수농공단지 내 비자이프로시스 나주물류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물류 차량 출입이 통제되면서 배송이 중단되거나 지연되고 있다”며 “전국 약 4000여 점포가 상품 공급 차질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립목포대학교 전기공학과 박태식·이동호 교수가 제안한 ‘차세대 전력망을 위한 AI 에너지 지역혁신연구센터’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인력양성사업 ‘지역에너지혁신연구센터’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 국립목포대, ‘AI 에너지 지역혁신연구센터’ 선정

### 단계평가 거쳐 7년간 총 32억 지원...산학협력 기반 운영

국립목포대학교(총장 송하철)는 전기공학과 박태식·이동호 교수가 제안한 ‘차세대 전력망을 위한 AI 에너지 지역혁신연구센터’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인력양성사업 ‘지역에너지혁신연구센터’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연구센터는 전남대 에너지 산업 수요를 기반으로 고급 인재 양성 및 차세대 전력망 AI 기술 확보를 목표로 추진된다.

지역에너지혁신연구센터 사업은 대학과 기업이 공동 참여해 지역 에너지 산업을 선도할 고급 인재를 양성하는 대형 인력양성 프로그램이다. 단계평가를 거쳐 7년간 총 32억이 지원되는 경쟁형 사업이다.

선정된 연구센터는 국립목포대를 주관 기관으로, 전남대가 공동기관으로 참여한

다. 수요기업으로는 ㈜위드비어, ㈜한국MBD, 케이피지랩㈜, ㈜터빈크루 등이 참여하는 산학협력 기반으로 운영된다.

한국전기연구원, 녹색에너지연구원, GS건설,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 ㈜제타일력 등 전력·에너지 분야 기관과 기업도 참여해 연구개발과 인력양성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연구센터는 생성형 AI 기반 전력망 설계, AI Agent 기반 전력망 최적 운영, 빅데이터 기반 전력설비 진단 및 자산관리 기술을 핵심 연구 분야로 추진한다. 연구·교육·실증을 통합한 지역형 인력양성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시뮬레이션 실습, 디지털 트윈 전력망 실증 환경, 글로벌 특화 교육

과정 등을 통해 산업 현장 중심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특히 나주 에너지밸리 캠퍼스를 중심으로 실시간 시뮬레이터와 HILS·P-HILS 기반 실증 환경, AI 데이터 분석 인프라를 구축한다. 참여기업과 공동 프로젝트와 매칭을 운영해 취업 연계형 인재양성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과 전력·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책임자 박태식 교수는 “전남대와 공동으로 차세대 전력망 AI 분야 연구와 교육을 통합 운영하고, 수요기업 참여형 산학협력 모델을 통해 지역 산업 맞춤형 고급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라며 “에너지밸리를 중심으로 지역을 넘어 세계 수준의 AI 전력망 연구 거점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혔다.

목포=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 중기부, 신종 랜섬웨어 확산 본격 대응

정부가 최근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신종 금융 요구 악성 프로그램 ‘Midnight(미드나이트)’와 ‘Endpoint(엔드포인트)’ 감염 공격이 확산됨에 따라 관련 위협정보를 공개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6일 중소기업기부와 경찰청, 한국인

터넷진흥원(KISA) 등에 따르면 랜섬웨어 미드나이트와 엔드포인트는 정보기술(IT) 시스템 구축·유지보수 업체를 먼저 침해한 뒤 이를 통해 고객사로 확산하는 방식이 특징이다.

이번 랜섬웨어는 파일 암호화에 그치지 않고 내부 데이터를 사전에 빼낸 뒤 금전

을 요구하는 이중 탈취형 공격 방식도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데이터 유출 후 공격을 협박하는 방식으로 피해 기업의 부담을 키우는 구조다.

중기부와 경찰청, KISA는 공격 기법과 악성 이메일 유형, 범죄 예방 및 대응 방안을 담은 보안 권고문을 관계기관과 기업, 사이버 위협정보 분석·공유 시스템 회원사에 배포했다.

김은지 기자 eunji@gwangnam.co.kr

빛이 수익이 되는 순간!  
태양광 에너지로 만드는 지속가능한 내일!

**(주)TH홀딩스**

건설·설치·인허가·리파워링·유지보수  
☎ 대표번호 : 062-953-8311 / 010-4572-7164

## 롯데아울렛, 초대형 할인 행사 ‘블랙 슈퍼쇼’ 연다

### 최대 30% 추가 할인 혜택...다양한 이벤트도

롯데아울렛이 초대형 할인 행사인 ‘블랙 슈퍼쇼’(BLACK SUPER SHOW)를 진행한다. 16일 밝혔다.

17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올해 첫 번째 초대형 할인 행사로 기존 아울렛 할인기에 추가 할인 혜택을 더하고 최대 1000만원의 쇼핑 지원금 이벤트가 진행되는 등 차별화된 혜택을 집약해 선보인다.

우선 롯데아울렛 광주월드컵점에서는 스포츠, 레저, 캐주얼 등 카테고리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나이키, 뉴에라, 프로젝트M 등 50여개 브랜드는 기존 할인기에 10~30%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모조스핀, 듀얼 등에서는 금액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또 디스크버리 인기 이월 상품을 최대 70% 할인된 가격으로 선보이는 ‘디스크버리 초특가전’과 여성 니트와 티셔츠를 각 2만9000원에 판매하는 ‘스위스미스 창고대공개’가 오는 22일까지 진행된다.

완도군과 함께 ‘완도 국제 해조류 박람회’ 홍보를 위한 자리도 마련된다.

18일 1층 정문 광장에서 신나는 버스킹과 마술 공연이 펼쳐지고 추첨을 통해 완도 해양차유센터 이용권 등 다양한 경품도 제공한다.

‘롯데아울렛 광주수원점’에서는 아울

렛 가격에 한 번 더 할인된 합리적인 가격을 다양하게 선보인다.

대표적으로 나이키, 아디다스, 휠라는 기존 할인기에 최대 10~30%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국내 최대 패션그룹인 듀얼, 주크, CC클래트, 모조스핀에서는 추가 2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유명 브랜드 스즈를 초특가로 선보이는 ‘ABC마트 팩토리 상품전’과 리코스테 블, 여름 이월 상품을 최대 70% 할인가로 판매하는 ‘리코스테 특집전’도 오는 22일까지 진행한다.

이밖에도 줄 서서 먹는 감자빵 원조 맛집인 ‘춘천감자빵 팝업’과 패션잡화, 악세서리 등 개성 있는 상품과 다양한 먹거리를 판매하는 플라마켓 ‘보고가게’를 만날 수 있다.

윤용성 기자 yo1404@

